

지난해에는 국론이 분열된 정치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황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들이 고��스런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체감경기가 오히려 악화되기때 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심각한 경제 상황속에서 을유년 새해를 맞았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한편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한층 더 깊어진 한 해였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극빈층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세밀일화들이 들려오고 있어 그나마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포근하게 해주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까지 메마르지 않았다는 증거다.

얼마 전 20여년간 폐품을 팔아 40대의 뇌성마비 아이들을 돌보는 한 70대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연이 뉴스로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응답달지는 지역 언론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서로 연계 보도한 결과라 한다. 이러한 온정이 줄을 잇자 사회단체나 관공서에서도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새아침에 정토를 꿈꾼다

소식이다. 반가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또한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도깨비노점상연합회 소속회원 30여명이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자 철거예정지인 종로구 창신동 거주 빈민들과 노숙자를 위해 이른바 '희망의 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훈훈한 기사도 접할 수 있었다.

불황과 실업으로 얼룩진 우리 경제의 어두운 구석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힘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가며 따뜻한 겨울을

만들고 있는 장면은 어느 한편의 영화 보다는 그 감동이 진하게 느껴진다.

한편으로 내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고백한다. 바쁜 일과에 묻혀 살면서 주위를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인천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집한 고철을 팔아 모은 돈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기부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온정을

배운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묵묵히 흐르는 저 소리없는 온정의 손길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같이 보시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하고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 근원일 것이다.

불교에서도 오계과지운동(五戒持運運動)이 있다. 이는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불자들의 공동운동으로 오계 중의 불부도계(不偷盜戒)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실천하자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보시와 자비의 실천운동, 기아 질병 구호운동,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운동 등으로 복덕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실천적목적인 셈이다.

이러한 실천적목적을 입으로만 외울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정정심이 넘쳐나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지 아니겠는가.

며칠전 남아시아에서 끔찍한 재앙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국가와 민족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한국인과 불교인들의 정성을 전했다면 좋겠다. 새해 온정으로 세상이 밝아지길 꿈꾸어 본다.

신년 사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이다. 거기에는 종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각 종파는 물론 단위 사찰이나 교회, 신도 단체들이 저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커뮤니티 활동 또한 그 폭을 넓히며 인터넷이 종교 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불교계도 인터넷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기에 분주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는 인터넷 세상에는 넘기 힘든 두 개의 산이 있다. 하나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콘텐츠(자료)의 문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종교 사이트들은 이 두 산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건과 자료 확보와 재가공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이다. 종교계가 운영하는 국제적 포털, 그 파급효과에 비해 수익성이 약하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2005년 신년 벽두 부다피아가 글로벌 불교포털로 변신한다고 선언 하고 나섰다. 일반 포털 사이트들이 갖는 기능과 불교

글로벌 포털 부다피아의 '희망'

전문 포털이 갖는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교전문 사이트로서의 부다피아가 '세계인'을 타겟으로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 한 것은 한국불교계가 박수를 치며 반길 일이다. 물론 그 선언은 분명하게 가다듬어진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 할 때 유효한 것이다. 실시간 불교 뉴스는 물론 문화 전반의 자료와 역사 인물자료 등 세계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의 기본 틀을 구축한 부다피아가 세계적 포털로 가기 위해 영문서비스를 먼저 실시하고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또 포털의 기본 기능인 커뮤니티와 불서와 전통 문화상품의 온라인 거래, 각종 정보방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세계인에게 한국불교의 큰 힘을 보여 줄 계획이다.

이 같은 부다피아의 변화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다피아가 지난 10년 간 불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정보서비스의 체계 구축 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불교계는 잘 알고 있다. 세계화가 한국불교의 화두로 떠오른 지는 오래다. 올해는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이 구체적인 세계화 전략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래서 부다피아의 글로벌 지향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희망이다.



이렇게 들었다 목표와 실천

고관(高官)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닦아가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재물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모으는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만큼이나 희망찬 을유년(乙酉年) 새해가 밝았다.

을유년을 의미하는 닭은 모란과 함께 그려지면 부귀를, 국화와는 장수를, 석류와는 다산을, 맨드라미와 함께 있다면 높은 벼슬을 나타낸다고 전해진다.

굳이 이런 닭의 의미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알차고 내실 있게 보내기 위해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어난 몸을 줄여 '몸짱'이 되기 위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쉽게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며 자조하기까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사람들이 있어서 큰 광명이 되어 온 암흑을 없애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발심(發心)과 수행(修行)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디게 가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체험해 보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유철주(주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종교간 화합의 노력은 지역·계층 따로 없는 것

얼마 전 조사연구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를 조사해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 이외의 것들이 무척 많더라는 것이다.

또 친분 있는 미국인 중 한 명은 한국의 받거리 곳곳에서 십자가발견하고는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서구 종교와 토착 종교, 전통종교와 신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분쟁 없이 살아가는 국가도 드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유난히 개신교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이 빈번해 불교계를 비롯한 타종교인들의 원성을 샀다.

그런데 과연 타종교인들만 그렇게 배타적인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가끔 불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보면 타종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다. 부지불식간에 내 머리 속에 타종교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통해 종교간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접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을 보았다. 이를 보면서, 앞으로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사회사업에서도 종교계가 손을 잡고 활동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됐다.



신년 독자 회고 — 지암 오태갑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세모,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것에도 종교계가 힘을 합한다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강상원(제주시 이도동)

후원금 쉽게 낼 수 있어야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소한 성금을 내고자 각 종단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내는 후원금 외에는 일시적인 후원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후

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 또는 종교와 일반 사회복지단체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쉽게 성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부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한 점은 불교계 종단과 단체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어려운 이들을 둘러보는 이 때,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종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자(조계종 홈페이지)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주차장 완비, 입장료 무료, 점심공양 가능,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우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원풍F&B HYUN PUNG F&B CO., LTD.